

2020년 5월 9일 시행

# 제34차 의무소방원 선발 필기시험

응시번호	
성명	

문제 책형
A

## 【 시험 과목 】

제 1 과목	제 2 과목	제 3 과목
국 어	국 사	일반상식

### 응시자 준수사항

☞ 시험지를 받으면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시험지 표지의 “문제 책형”을 확인하고, “응시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답안지의 책형란에 “시험지 책형”을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시험지의 “과목 순서”, “페이지 수량”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에 문제풀이 바랍니다. ※ 본 시험지는 총 14 페이지입니다.
4.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며,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중앙소방학교**  
NATIONAL FIRE SERVICE ACADEMY

# 【 국 어 】

※ [ 1 ~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제문: 문화재 관리가 필요하다.

I. 서론

1. 허술한 문화재 관리 실태

II. 본론

1. 문화재 관리가 안 되는 이유

- 1) 허술한 문화재 관련 법안
- 2) 기관별 개별적인 문화재 관리
- 3) 전문성 없는 문화재 관리 사업

2.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한 방안

- 1) 문화재 관련 법률안 개정
- 2) 종합적인 문화재 관리 시스템 마련
- 3) 전문 인력 양성

III. 결론

( 가 )

1. 이 글을 검토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제문을 고려할 때 글쓴이는 정부나 담당기관을 대상으로 한 글을 계획하고 있군.
  - ② 본론 전체의 구성을 보니, 이 개요는 문제와 문제 해결방법을 탐색하고 있군.
  - ③ ‘본론 1’ 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본론 2’ 에 종합적인 문화재 관리 시스템 마련의 문제점을 추가할 수 있겠군.
  - ④ 개요를 토대로 통계 자료나 도표를 활용하면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겠군.
2. ( 가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 ① 기관별 개별적인 문화재 관리가 중요하다.
  - ② 문화재 관리 사업을 위해 전문적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 ③ 개별적인 관리를 위해 문화재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 ④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재 관리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 [ 3 ~ 4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3.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과장적인 표현을 통해 골계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② 화자의 시선이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바뀌고 있다.
  - ③ 과거를 되돌아보며 자아 성찰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 ④ 직접적인 정서의 표출을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4. ㉠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예로 옳은 것은?
- ①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 낮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 ② 바다는 뿔뿔이 / 달아날라고 했다. / 푸른 도마뱀 떼같이 재재 발렸다.
  - ③ 분분한 낙화... /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 지금은 가야할 때.
  - ④ 한 줄의 시는커녕 /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 많은 돈을 벌었고 / 높은 자리에 올라 /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 [ 5 ~ 6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내가 최근 몇 년 이래 독서에 관해 자못 깨달은 점이 있다. 한갓 읽기만 해서는 비록 날마다 백 번 천 번을 읽는다 해도 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무릇 독서란 매번 한 글자를 읽을 때마다 뜻이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으면 널리 살펴보고 자세히 궁구하여 그 근원 되는 뿌리를 얻어야 한다. 그래야만 차례대로 글을 이룰 수 있다. 날마다 이렇게 한다면 한 종류의 책을 읽더라도 겉으로 백 종류의 책을 아울러 살피게 될 뿐 아니라 그 책의 내용도 환하게 꿰뚫을 수 있게 될 터이니, 이 점을 알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사기』의 「자객열전」을 읽는다고 하자. ‘조제(祖祭)를 지낸 뒤 길에 올랐다(既祖就道).’ 라는 한 구절을 마주하게 되면, “조(祖)란 것은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묻지 않겠니? 그러면 선생님께서 “전별할 때 지내는 제사니라.” 라고 말씀하실 게다. “꼭 조(祖)라고 말하는 것은 어째서 입니까?” 라고 다시 물으면, 선생님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겠지. 그런 뒤에 돌아와 집에 이르면 사전을 꺼내서 조(祖) 자의 본래 의미를 살펴보아라. 또 사전을 바탕으로 다른 책에 미쳐서 그 풀이와 해석을 살펴 말의 뿌리를 캐고, 그 작은 의미까지 모아야 한다. 여기에다 『통전(通典)』이나 『통지(通志)』, 『통고(通考)』 같은 책에서 ‘조제’의 예법을 살펴 차례대로 모아 책을 만들면 길이 남을 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전에는 한 가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던 내가 이날부터는 조제의 내력에 완전히 능통한 사람이 되겠지. 비록 큰 학자라 하더라도 조제 한 가지 일에 관해서는 너와 다투지 못하게 될 테니 어찌 큰 즐거움이 아니겠느냐?

주자의 격물(格物)하는 공부도 다만 이 같을 뿐이었다. 오늘 한 가지 사물을 궁구하고, 내일 한 가지 사물을 캐는 사람도 또한 이렇게 해서 시작했다. ‘격(格)’이란 말은 밑바닥까지 다 캐낸다는 뜻이니, 밑바닥까지 다 캐지 않는다면 또한 유익되는 바가 없을 것이다.

5. 이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독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 ② 전개되는 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을 추가하여 설명을 보충하고 있다.
  - ③ 가상의 대화 상황을 설정하여 자신의 주장을 독자가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 ④ 성인의 방법과 자신이 주장하는 방법이 같음을 들어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6.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 ① 하나의 책이라도 여러 번 읽으면 여러 권의 책을 읽은 것과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 ② 독서를 하면서 생긴 의문을 풀기 위해 관련된 다른 책을 읽으면 공부의 깊이가 깊어진다.
  - ③ 단어가 지닌 작은 의미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이 쓰이는 폭넓은 의미를 이해할 때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 ④ 독서를 할 때에는 그 책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해석을 참고하려 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깨우침을 얻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7. <보기>에서 ㉠의 예로 옳은 것은?

— < 보 기 > —

형태소는 일정한 뜻을 지닌 최소 단위이다. 형태소 중에는 다른 말의 도움 없이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도 있고, 반드시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형태소도 있다. 즉 ㉠자립 형태소는 앞뒤에 다른 형태소가 직접 연결되지 않아도 문장에서 쓰일 수 있지만, 의존 형태소는 앞뒤에 적어도 하나의 형태소가 연결되어야만 문장에서 쓰일 수 있다.

- ① 그는 점순이가 준 햇감자를 먹지 않았다.
- ② 그들은 손을 맞잡은 채로 등산을 시작했다.
- ③ 지희는 그 사람 됨됨이 하나만 믿고 결혼을 했다.
- ④ 떡볶이를 먹고 혀가 얼얼해서 물을 한 모금 머금고 있다.

※ [ 8 ~ 9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명한 인류 언어학자인 워프는 “언어는 우리의 행동과 사고의 양식을 결정하고 구조(鑄造)한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실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광선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색깔인 무지개색이 일곱 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색깔을 분류하는 말이 일곱 가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 국어에서 초록, 청색, 남색을 모두 푸르다(또는 파랗다)고 한다. ‘푸른(파란) 바다’, ‘푸른(파란) 하늘’ 등의 표현이 그것을 말해 준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이 흔히 이 세 가지 색을 혼동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 분명히 다른 색인데도 한 가지 말을 쓰기 때문에 그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우리의 사고를 지배한다는 의미가 된다. 말을 바꾸어서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객관의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느끼는 세계는 있는 그대로의 객관의 세계라기보다, 언어에 반영된 주관 세계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을 ‘언어의 상대성 이론’ 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실제로는 언어가 그만큼 우리의 사고를 철저하게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언어상의 차이가 다른 모양의 사고 유형이나, 다른 모양의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앞에서 말한 색깔의 문제만 해도 어떤 색깔에 해당되는 말이 그 언어에 없다고 해서 전혀 그 색깔을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진하다느니 연하다느니 하는 수식어를 붙여서 같은 종류의 색깔이라도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그 한 가지 사례이다. 물론, 해당 어휘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인식하기에 빠르고 또 오래 기억할 수 있지만 해당 어휘가 없다고 해서 인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8. 이 글의 주제로 옳은 것은?

- ① 언어와 사고의 관계
- ② 문법 구조와 사고의 관계
- ③ 개별 언어의 문법적 특성
- ④ 언어가 사고 발달에 주는 영향

9. <보기>를 통해, 워프의 견해에 제기할 수 있는 의문으로 옳은 것은?

— < 보 기 > —

생후 12개월이 된 사촌동생은 아직 말을 하지 못한다.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엄마 손을 끌어당겨 그 물건이 있는 데까지 가고, 엄마가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울음을 터뜨린다.

- ① 언어 없이도 사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 ② 언어 표현은 개인 특성을 드러내지 않을까?
- ③ 언어가 있어야 정확한 의사 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 ④ 언어 발달 단계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10. <보기>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높임법은 화자가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으로 구분된다. 주체 높임법은 주어의 지시 대상을 높이는 것이며,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의 지시 대상을 높이는 것이며, 상대 높임법은 말을 듣는 상대인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다.

동생: (현관문 열며) 친구랑 영화 잘 보고 왔습니다.

형: 이제 ㉠들어오는구나.

동생: 형만 집에 있어? ㉡어머니는 안 계신 거야?

형: 응, 우리끼리 피자 주문해서 먹자. ㉢아까 어머니께 말씀 드렸어.

동생: 근데 돈은 있어?

형: 응, 있지. ㉣어머니께서 너랑 같이 피자 먹으라고 카드 주셨어.

- ① ㉠은 ‘-는구나’ 를 사용해 상대인 동생을 낮추고 있다.
- ② ㉡은 ‘계시다’ 를 사용해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 ③ ㉢은 ‘께’ 를 사용해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 ④ ㉣은 ‘께서’ 를 사용해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 [ 11 ~ 1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

십 년(十年)을 경영(經營)하여 초려 삼간(草廬三間) 지어 내니  
 나 혼 간 들 혼 간에 청풍(淸風) 혼 간 맞져 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디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 송순

( 나 )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太平盛代(대평성덕)

날리는 엇디 살라 호고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太平盛代(대평성덕)

잡사와 두어리마는는  
 선흐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太平盛代(대평성덕)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太平盛代(대평성덕)  
 - 작자미상

11. ( 가 )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자와 자연과의 합일이 나타난다.  
 ② 화자는 자연에 은거하는 삶을 지향한다.  
 ③ 화자는 검소한 삶을 오랫동안 추구했다.  
 ④ 화자가 추구한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가 나타난다.
12. <보기>를 참고할 때, ( 나 )의 1연에 나타난 율격 구조와 다른 것은?

— < 보 기 > —

「가시리」에서 화자의 목소리는 점층과 반복의 수사로 드러난다. 이러한 수사는 우리의 전통 문학에서 흔히 드러나는 것으로, 정서 및 태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율격을 형성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 ① 기심 매러 갈 적에는 갈뽕을 따 가지고 기심 매고  
 울 적에는 울 뽕을 따 가지고  
 ②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갱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③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 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④ 나는 왕이로소이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어머니의  
 가장 어여쁜 아들 나는 왕이로소이다.

13.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① 꿈을 꾸과 동시에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② 갑자기 어린아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③ 친구는 서로 믿음으로써 평생을 함께하는 존재이다.  
 ④ 그녀는 많이 앞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없었다.

14. <보기>를 읽고, 보인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교사: 어간에 어미가 붙어 활용될 때에,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그 형태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그중, ‘르’ 불규칙 활용과 ‘러’ 불규칙 활용에 대해 다음의 밑줄 친 사례를 통해 알아보시다.

\* ‘르’ 불규칙 활용  
 · 흐르다: 강물이 흐르고 흘러 바다에 닿았다.  
 · 이르다: 그는 나에게 도착 시간을 일러 주었다.

\* ‘러’ 불규칙 활용  
 · 푸르다: 하늘은 푸르고 푸르러 눈이 시릴 지경이었다.  
 · 이르다: 목적지에 이르러 우리는 가방을 벗었다.

- ① ‘르’ 불규칙 활용은 활용의 과정에서 어간의 형태만 바뀐다.  
 ② 형태가 같더라도 의미가 다르면 불규칙 활용의 양상이 다를 수 있다.  
 ③ ‘시험을 치르다’의 ‘치르다’를 ‘러’ 불규칙 활용의 예로 추가할 수 있다.  
 ④ ‘르’ 불규칙 활용과 ‘러’ 불규칙 활용 모두 어간이 ‘르’로 끝나는 용언에서 일어난다.

※ [ 15 ~ 16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몸을 웅크리고 가마니 속에 쓰러져 있었다. ㉠한 시간 후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손과 발이 돌덩어리처럼 차다. 허영게 흠뻑마다 서리가 앉은 깊은 움 속, 서너 길 높이에 통나무로 막은 문 틈 사이로 차가이 하늘이 엿보인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냄새로 짐작하여 그리 오래 된 것 같지는 않다. '누가 며칠 전까지 있었던 모양이군, 그놈이나 매한가지지' 하고 사닥다리를 내려서자마자 조그만 구멍으로 다시 끌어올리며 서로 주고받던 그자들의 대화가 아직도 귀에 익다. 그놈이라고 불린 사람이 바로 총살 직전에 내가 목격하고 필사적으로 놈들의 사수(射手)를 향하여 방아쇠를 당겼던 그 사람이었을까……. 만일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 몸이 떨린다. 뼈 속까지 얼음이 박힌 것 같다.

소속 사단은? 학벌은? 고향은? 군인에 나온 동기는? 공산주의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미국에 대한 감정은? 그럼…… 동무의 말은 하나도 이치에 정치 않소. 동무는 아직도 계급의식이 그대로 남아 있소. 출신 계급을 탓하지는 않소. 오해하지 마시오. 그 근성이 나쁘다는 것뿐이오. 다시 한 번 생각할 여유를 주겠소. 한 시간 후 동무의 답변이 모든 것을 결정지을 거요.

몽롱한 의식 속에 갖 지나간 대화가 오고 간다. 한 시간 후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사박사박,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밑에 부서지는 눈, 그리고 따발 총구를 등 뒤에 느끼며 앞장 서 가는 인민군 병사를 따라 무너진 초가집 뒷담을 끼고 이 움 속 감방으로 오던 자신이 마음속에 삼삼히 아른거린다. 한 시간 후면 나는 그들에게 끌려 예정대로의 독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이다.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대장은 말할 테지. 좋소.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시오. 발자국마다 사박사박 눈 부서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아니, 어쩌면 놈들은 내 옷이 탐이 나서 흘랑 발가벗겨서 견게 할지도 모른다(찢어지기는 하였지만 아직 색깔이 제 빛인 미(美) 전투복이니까……). 나는 발가벗은 채 추위에 살이 빨가니 얼어서 흰 독길을 걸어간다. 수발의 총성. 나는 그대로 털썩 눈 위에 쓰러진다. 이윽고 붉은 피가 하얀 눈을 호젓이 물들여 간다. 그 순간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놈들은 멧쩍게 총을 다시 거꾸로 돌려메고 본대로 돌아들 간다. 발의 눈을 털고 추위에 손을 비벼 가며 방안으로 들어들 갈 테지. 몇 분 후면 그들은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담배들을 말아 피우고 기지개를 할 것이다. 누가 죽었건 지나가고 나면 아무 것도 아니다. 그들에게 모두가 평범한 일들이다. 나만이 피를 흘리며 흰 눈을 움켜쥔 채 신음하다 영원히 목살되어 묻혀 갈 뿐이다. 전 근육이 경련을 일으킨다. 추위 탓인가……. 퀴퀴한 냄새가 또 코에 스민다. 나만이 아니라 전에도 꼭 같이 이렇게 반복된 것이다. 싸우다 끝내는 죽는 것, 그것뿐이다. 그 이외는 아무것도 없다. 무엇을 위한다는 것, 그것도 아니다. 인간이 태어난 본연의 그대로 싸우다 죽는 것, 그것뿐이라고 생각하였다.

북으로 북으로 쏘살같이 진격은 계속되었다. 수차의 전투가 일어났다. 그가 인솔한 수색대는 적의 배후 깊숙이 파고 들어갔다. 자주 본대와와의 연락이 끊어지기 시작하였다.

- 오상원, 「유예」

15. 이 글의 서술 방법으로 옳은 것은?

- ① 인물 간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인물의 대화나 행동이 의식 속에 용해되어 나타난다.
- ③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 인물 간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 ④ 순차적으로 사건을 제시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16. 밑줄 친 ㉠의 문맥적 의미로 옳은 것은?

- ① 적에게 사로잡혀 움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이다.
- ② 눈이 덮인 흰 독길 위에서 잔인하게 총살될 것이다.
- ③ 적의 사수(射手)를 향해 필사적으로 방아쇠를 당길 것이다.
- ④ 강추위와 적들의 고문에 내 몸뚱이가 견뎌 내지 못할 것이다.

※ [ 17 ~ 18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방의 성질이 탐욕에 물들어서 부끄러운 구석이 별로 없었다. 재정을 도맡아 관리하게 되자 원금과 이자를 가볍게 했다 무겁게 했다 하는 등 법을 저울질해 분별하기를 좋아하였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라를 편하게 해 주는 데는 꼭 예전처럼 흙을 굽거나 쇠를 부어 넣는 기술만 있는 것은 아니야.” 하고, 백성을 상대로 사소한 이익을 다투게 되자 물가는 내리거나 오르거나 했다. 곡식을 천히 여기고 돈을 중히 생각하니 백성들로 하여금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따르게 함으로써 농사를 가로막게 되었다. 이때 간관들이 여러 번 상소하여 따지려 하였지만 위에서 들어 주지 아니하였다.

공방은 또 권세 있고 지체 귀한 자들을 수단 좋게 섬겼다. 그 문전에 드나들며 ㉠권력을 끌어 들여 벼슬을 팔아넘겼으니 승진하고 쫓겨나는 일이다 그의 손바닥 안에 달려 있었다. 공경들도 대부분 지조를 버리고 그를 섬기며 쌓이고 굽어모은 어음이 산과 같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가 접촉하고 만나는 모든 대상에 있어서 그 잘나고 못나고를 묻지 않았으니, 아무리 시정에 물든 이라도 재산만 정말 넉넉한 사람 같으면 다 더불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른바 ‘시정배의 사귀’ 이란 것이었다.

때로는 마을의 불량한 젊은 놈들과 상종하여 바둑을 두고 놀이를 일삼았다. 사람 사귀기를 자못 좋아할 때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두고, “공방의 말한 마디는 황금 백 근의 무게와도 같다.” 하고 말했던 것이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공방이 죽은 뒤 당나라 이전 시기까지 공방의 무리를 다시 등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종종 나타나기는 했지만, 실제 등용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때는 공방이 몰락한 지 이미 오래라, 조정에서는 사방에 흩어져 옮겨 있던 그의 문도들을 물색하여 찾아서 다시 기용하였다. 그랬던 까닭에 그의 재간과 방법이 개원·천보의 사이에 크게 행하여졌고, 황제의 조서로 그에게 벼슬을 추증하였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남의 신하가 된 몸으로서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만을 좇는 자를 어찌 충성된 사람이라 고하라. 공방이 올바른 법과 좋은 주인을 만나서, 정신을 집중시켜 자기를 알아주었던 나라의 은혜를 적지 않게 입었다. 그러면 의당 국가를 위하여 이익을 일으켜 주고, 해를 덜어 주어서 임금의 은혜로운 대우에 보답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공방은 나라의 권세를 독차지하고 사리사욕을 채웠으니, 이는 신하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에 어긋난다.”

- 임춘, 「공방전」

17.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인화된 대상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직접 제시를 통해 주인공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주인공의 신이한 행적을 강조해 영웅적 면모를 드러낸다.
- ④ 사신(史臣)의 이야기를 통해 작가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18. 밑줄 친 ㉠을 뜻하는 한자성어로 옳은 것은?

- ① 매관매직(賣官賣職)      ② 팔목상대(刮目相對)
- ③ 수주대토(守株待兔)      ④ 남부여대(男負女戴)

19. <보기>에서 밑줄 친 ㉠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음운 변동이란 어떤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변화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음운 변동 중 하나의 예로 ㉠음운 축약이 있다. 자음 축약의 경우 ‘ㄱ, ㄷ, ㅂ, ㅈ’ 과 ‘ㅎ’ 이 만나면 축약되어 거센소리 ‘ㅋ, ㅌ, ㅍ, ㅊ’ 이 된다. 모음 축약의 경우 모음 ‘ㅣ’ 나 ‘ㅛ, ㅜ’ 가 다른 모음과 결합하여 이중모음을 이루게 된다.

- ① 그는 대학교에 가서 법학을 전공했다.
- ② 게임이 아무리 좋아도 자제도 할 줄 알아야 한다.
- ③ 할머니께서는 그에게 초상화를 그려 주길 부탁하셨다.
- ④ 생일날 친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와서 기분이 유쾌했다.

20. <보기>는 한글 맞춤법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보 기 > —

제23항 ‘-하다’ 나 ‘-거리다’ 가 붙은 어근에 ‘-이’ 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꿀꿀이, 오뚝이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 로만 나는 것은 ‘-이’ 로 적고, ‘히’ 로만 나거나 ‘이’ 나 ‘히’ 로 나는 것은 ‘-히’ 로 적는다.

1. ‘이’ 로만 나는 것

예) ㉡깨끗이, 나뭇이

2. ‘히’ 로만 나는 것

예) ㉢극히, 급히

3. ‘이, 히’ 로 나는 것

예) ㉣솔직히, 가만히

- ① ‘머리가 덩수룩이 나다’ 의 ‘덩수룩이’ 는 ㉠에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다.
- ② ‘비녀를 반듯이 찌르다’ 의 ‘반듯이’ 는 ㉡에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다.
- ③ ‘쓸쓸히 퇴장하다’ 의 ‘쓸쓸히’ 는 ㉢에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다.
- ④ ‘엄격히 다스리다’ 의 ‘엄격히’ 는 ㉣에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다.

## 【 국 사 】

1. ( 가 ) 시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가 ) 시대의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와 용도를 가진 간석기를 사용하였다. ( 가 )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인 빗살무늬 토기는 서울 암사동, 경남 김해 등 한반도 전역에서 출토되었으며, 대부분 강가나 바닷가에서 발견되었다.

- ① 계급 사회로 발전하였다.
- ② 비파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 ③ 무리를 지어 이동 생활을 하였다.
- ④ 어로가 발달하고 농경이 시작되었다.

2. ( 가 )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은/는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였는데, 특히 특산물로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의 특산물이 많이 생산되었다. 10월에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 ① 책화의 풍습이 있었다.
- ② 서옥제라는 혼인 풍속이 있었다.
- ③ 철이 많이 생산되어 이를 화폐처럼 사용하였다.
- ④ 신지, 읍차 등으로 불리는 군장 세력이 성장하였다.

3. ( 가 )에 들어갈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광개토대왕	( 가 )	문자(명)왕
재위: 391 ~ 413	재위: 413 ~ 491	재위: 491 ~ 519

- ①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쳤다.
- ②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 ③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④ 왕의 칭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바꾸었다.

4. 다음의 상황이 전개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무열왕계의 권력 독점에 불만을 품은 진골 귀족이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켰다. 무열왕계의 전제 왕권은 무너지고, 이후 왕위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귀족은 대농장을 차지하고 사병을 기르며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었다. 귀족의 가혹한 수취를 견디지 못한 농민은 노비나 초적으로 몰락했고, 마침내 곳곳에서 봉기가 일어났다.

- ① 진대법이 시행되었다.
- ② 교정도감이 설치되었다.
- ③ 삼국유사가 저술되었다.
- ④ 선종 불교가 크게 유행하였다.

5. 고려 성종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 ① 과전법을 실시하였다.
- ② 사심관 제도를 실시하였다.
- ③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 ④ 광덕, 준풍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6. 다음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사노 만적 등 6인이 북산에서 나무하다가 공·사노비들을 불러 모의하였다. “나라에서 경인·계사년 이후로 고관이 천민과 노비에서 많이 나왔다. 공경장상의 씨가 따로 있으랴,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리만 어찌 빠빠지게 일하겠는가! …(중략)… 주인들을 죽이고 노비 문서를 불태워 이 땅의 천민을 없애면 우리도 공경장상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 “고려사” -

- ① 노비안검법이 시행되었다.
- ② 직지심체요절이 간행되었다.
- ③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 ④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수용되었다.

7. 밑줄 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왕이 일개 승려에 불과하던 신돈에게 국정을 맡겼다. 신돈은 “오늘날 나라의 법이 무너져 나라의 토지와 약한 자들의 토지를 힘 있는 자들이 모두 빼앗고, 양민을 자신의 노예로 삼고 있다. …(중략)… 스스로 토지를 반환하는 자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라고 공포하였다.  
- “고려사” -

- ① 별무반을 창설하였다.
- ② 팔만대장경을 간행하였다.
- ③ 시정 전시과를 시행하였다.
- ④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8. 다음의 업적을 남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홍문관을 설치하였다.
- 관수관급제를 시행하였다.
- 동국여지승람, 국조오례의 등을 편찬하였다.

- ① 칠정산을 편찬하였다.
- ② 별기군을 조직하였다.
- ③ 6조 직계제를 시행하였다.
- ④ 경국대전을 완성해 반포하였다.

9. 다음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사화는?

김종직은 초야의 미천한 선비로 세조 시기 과거에 급제하였다. 성종 시기에 발탁되어 경연에 두어 오랫동안 시종의 자리에 있었다. 형조 판서에 이르러서는 은총이 온 조정을 기울게 하였다. …(중략)… 지금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이 찬수한 사초에 부도한 말로써 선왕 대의 일을 거짓으로 기록하고, 스승 김종직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실었도다.  
- “연산군일기” -

- ① 무오사화                      ② 갑자사화
- ③ 기묘사화                      ④ 을사사화

10. (가)에 들어갈 기구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 ( 가 ) >

본래 왜구와 여진족에 대비해 군사 문제를 논의하는 임시 회의 기구로 설치되었지만, 왜란을 겪으면서 구성원이 확대되고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왕권이 약화되고 의정부와 6조의 행정 체계도 유명무실해졌다.

- ① 승정원                              ② 의금부
- ③ 비변사                              ④ 춘추관

11.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양난 이후 정부는 농촌 사회의 안정을 꾀하고, 국가 재정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취 체제를 개편하였다. (가)은/는 광해군 시기에 공납의 폐단을 극복하고 국가 재정을 보충하고자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 ① 공인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② 양반의 균역 면제 특권이 사라졌다.
- ③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포를 거두었다.
- ④ 풍흉에 상관없이 토지 1결당 쌀 4두를 거두었다.

12. (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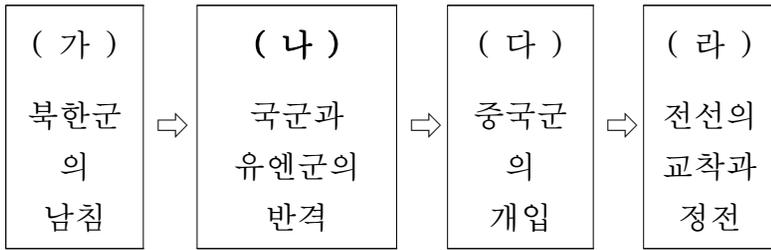
(가)은/는 성균관 앞에 “두루 사랑하고 편당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요, 편당하고 두루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소인의 사사로운 생각이다.”라는 내용이 새겨진 탕평비를 세웠다.

- ① 예송이 일어났다.
- ② 균역법이 시행되었다.
- ③ 경신환국이 일어났다.
- ④ 초계문신제가 시행되었다.



19. 다음은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이다.

(나)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옳은 것은?



- ① 1·4 후퇴                      ② 반공 포로 석방  
③ 미·소 양군 철수            ④ 인천 상륙 작전 실시

20. 다음과 관련된 사건으로 옳은 것은?

이승만 1인 독재 체제 밑에서 참고 또 참아 오던 분노는 3·15 부정 선거에서 민주주의라는 이상이 비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보았을 때 해일처럼 터지고 만 것이다. 맨주먹의 젊은 학생들이 독재의 아성을 향해 포효하며 육박하였을 때 국민이 일제히 이에 호응하였다.

- ① 4·19 혁명                      ② 6월 민주 항쟁  
③ 제주 4·3 사건                ④ 5·18 민주화 운동

## 【 일반상식 】

1.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으로 옳은 것은?

한 사회의 문화가 다른 사회의 문화로 흡수되거나 대체되는 경우이다. 남아메리카 지역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언어 대신 그들을 식민 지배한 에스파냐나 포르투갈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 ① 문화융합                      ② 문화병존
- ③ 문화동화                      ④ 문화상대주의

2.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생산 과정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일을 완성하는 분업은 노동의 생산성을 촉진하고 개선한다.
-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과 양조업자, 빵집 주인의 자비 때문이 아니라 그들 각자가 자신의 이익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 “국부론”

- ①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강조하였다.
- ②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 보장을 강조하였다.
- ③ 대공황 이후 뉴딜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 ④ 세계화에 따른 신자유주의 체제를 지지하였다.

3.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바람직한 소비는 원료 재배, 생산, 유통 등이 소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윤리적인 판단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 을: 바람직한 소비는 자신의 욕구와 상품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소유한 자원의 범위 내에서 구매하여 최대 만족을 얻는 것이다.

- ① 갑: 환경과 공동체를 고려하여 물건을 구매한다.
- ② 갑: 비용 대비 최대의 효용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 ③ 을: 합리적 소비보다 과시하기 위한 소비를 한다.
- ④ 을: 자신의 소득 수준을 고려한 소비는 필요 없다.

4.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도의 사례로 옳은 것은?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한다.

- ① 사회보험                      ② 혁신도시
- ③ 공공부조                      ④ 여성 할당제

5. 다음 글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화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나눌 수 있다. 소극적 평화는 전쟁, 테러, 폭행 등 신체에 가하는 직접적인 폭력의 사용이나 위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와 달리 적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억압, 착취 등의 구조적인 폭력과 종교, 사상, 언어 등에 존재하는 문화적 폭력까지 제거하여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갈 삶의 조건이 조성된 상태를 가리킨다. 진정한 평화는 소극적 평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 갈통(Galtung, J.)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 ① 평화를 위해 물리적 폭력을 제거해야 한다.
- ② 사회적 차별은 적극적 평화를 저해할 수 있다.
- ③ 국제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로 한정해야 한다.
- ④ 문화적 폭력으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6. 밑줄 친 내용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한 헌법에서는 자유, 평등, 선거, 교육, 근로 등을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였지만,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제정이 곧바로 이어지지 않았다. 또한 당시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등이 기본권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수차례 헌법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제한되기도 하였으나, 시민들은 민주화 운동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① 10월 유신                      ② 4·19 혁명  
 ③ 6월 민주 항쟁                ④ 5·18 민주화 운동

7. [ 가 ~ 라 ]는 인권 보장을 위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를 발생한 순서대로 나열한 것 중 옳은 것은?

가. 영국의 노동자들은 선거권의 확대를 요구하는 인민헌장을 발표하고 차티스트 운동을 전개하였다.  
 나. 미국은 영국과의 독립 전쟁 과정에서 국민 주권의 원리, 저항권 등이 담긴 독립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다. 제2차 세계 대전의 결과를 반성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국제 연합 총회에서 인권 보장의 국제 기준을 제시하였다.  
 라.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처음으로 헌법에 사회권을 규정하였다.

-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라 - 나 - 다  
 ③ 나 - 가 - 다 - 라  
 ④ 나 - 가 - 라 - 다

8. <보기>중 발전소에서 보내는 전력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송전과정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 < 보 기 > —

ㄱ.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킨다.  
 ㄴ. 송전선의 저항을 줄인다.  
 ㄷ. 송전 전압을 낮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④ ㄴ, ㄷ

9. ( 가 )와 ( 나 )의 반응에서 산화되는 물질을 각각 찾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가 )  $Zn + Fe^{2+} \rightarrow Zn^{2+} + Fe$   
 • ( 나 )  $Mg + Cu^{2+} \rightarrow Mg^{2+} + Cu$

- |   | ( 가 )     | ( 나 )     |
|---|-----------|-----------|
| ① | Zn        | Mg        |
| ② | Zn        | $Cu^{2+}$ |
| ③ | $Fe^{2+}$ | Mg        |
| ④ | $Fe^{2+}$ | $Cu^{2+}$ |

10. 수평면에 가만히 놓여있는 물체에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2N의 일정한 힘이 5초(s)동안 작용하였다. 물체가 받은 충격량[Ns]의 크기는? (단, 모든 마찰과 공기저항은 무시한다)

- ① 2                      ② 5                      ③ 10                      ④ 20

